

枯死상태의 有實樹 生氣되 찾아

樹種別 適地이식 適量施肥 실시

團員 全尙根 교수 技術指導로 成功

강원도 양구군 남면일대의 야산에는 풍요한 농촌의 내일을 기약하듯 각종 유실수가 즐비하게 심어져 있다.

잣나무를 비롯한 밤나무, 오동나무, 낙엽송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어울려져 야산을 푸르게 하고있다.

이 野山은 楊口郡 楊口面 上里의 김씨 소유로 지난 74년초부터 새마을사업과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심혈을 기울여온 사업.

金씨는 50ha의 면적에 막대한 資金을 투입. 비교적 소득성이 높은 잣나무를 주종목으로 밤

나무, 낙엽송, 오동나무를 심고 그 成長에 기쁨을 같이하며 結實의 그날을 고대해왔다.

그러나 74년 가을부터 푸르려야 할 나무들이 생기를 잃고 일부는 잎이 말라 枯死지경에 이르렀고 나머지 나무들도 成長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는등 예년에 없이 발육상태가 불안전했다.

金氏는 造林과 所得에 대한 의욕은 누구보다 앞서 있었으나 옳게 심고 옳게 가꾸어야 하는 지식과 과학적인 기술이 부족되었던 것이다.

당황한 金氏는 造林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 개인적인 지식으로 온갖 지혜를 동원, 枯死직전

에 있는 각종 나무들을 소생시키려 했으나 날이 갈수록 그 피해는 늘어만 갔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리만 거듭하던 김영기씨는 급기야 강원도 새마을기술봉사단(단장 최종열)에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理論과 實際가 결합 최선의 기술을 도입, 영양과 병충해에 찌들린 나무들을 소생시켜보자는 뜻에서였다.

이같은 기술지원요청을 받은 강원도 새마을기술봉사단은 즉시 최종열 장단을 비롯 全尙根씨등 造林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지도반을 편성, 현지조사에 나섰다.



강원도 양구군 양구면 상리 야산 50ha 낙엽송 조림지에서 적지 식재관리를 기술지도하는 광경.

全尙根 박사는 現地답사의 主眼點으로 ①樹種別로 適地에 造林이 되어있는가? ②植栽後의 묘목 관리를 어떠한 方法으로 하고있는가 ③造木地의 炎害상태 ④造林地의 適重施肥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과학적인 검토가 따른 현지답사결과와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일부樹種은 전혀 적지가 아닌곳에 식목이 되어있는가하면 적기 적량의 시비가 이루어지지않아 영양과잉 또는 과부족상태가 불규칙하게 눈에 띄었다.

또한 수중에 맞는 적절한 약제선택과 살포시기등의 미흡으로 일부 수종은 병에 걸려 枯死직전에 놓여있었다.

기술봉사단은 즉시 적극적이고도 과학적인 기술지도를 펴기 시작했다.

전혀 적지가 아닌곳에 식재 되어있는 오동나무를 다른곳으로 이식할것을 권유했고 산능선등 양수분이 척박한곳에 식목이 되어있는 잣나무, 낙엽송 대신에 오리나무와 소나무류를 혼식하여 수목의 적지이식을 권장지도했다.

일부 등고병에 걸린 밤나무에 대해서는 즉시 약제를 살포토록하고 수형조절이 되어있지않은 밤나무는 직접 작업시범을 보이면서 조절토록 권유했다.

또한 늦은봄 또는 초여름에 실시하고 있는 施肥를 낙엽진후나 또는 이른봄에 하도록 했으며 시비량 시비방법에 대해서도 간이토양검사를 실시 면밀한 지도를 폈다.

특히 묘목의 植栽에 있어 그 方法이 거의가 在來式이어서 묘목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영양분을 섭취 튼튼한 바탕위에서 발육하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 樹種別로 최선식재방법들을 지도했다.

植栽後의 묘목의 안전관리 및 성장도를 높이기 위해 베어는 풀들을 밖으로 운반하지 못하게

하고 造林地에서 풀을 벨때의 방법들을 지도 무질서한 제조방법을 시정시켰다.

이같은 봉사단의 수차에 걸친 답사와 지도는 枯死직전에 놓여있던 갖가지 樹種들을 回生시키는 結果를 낳았고 造林主 김영기씨는 경제수종 조림에 새로운 의욕을 갖게 되었다.

등고병에 걸린 밤나무들이 푸르름을 되찾았고 적기 적량의 시비는 나무의 영양공급을 합리적으로 개선시켜 다시 울창한 산림을 만들어 놓았다.

오리나무와 소나무류를 혼식한 산능선의 수목도 양수분의 적절한 섭취로 생기를 되찾았고 과학적인 묘목보관은 식재시 나무가 그 기반을 굳히고 生長을 돕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김영기씨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양을 분석, 지도를 받은결과 수종별로 적지선택이 가능하게 되었고 과학적인 기술의 습득으로 현재 식재된 수종 이외의 경제수종도 식목할 수 있는 지식이 함양된 것이다.

이는 金씨자신뿐아니라 楊口面 上里마을 주민들에게 造林에 대한 계획 및 관리에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아무리 황폐된 야산이라도 과학적인 기술과 지식만 갖으면 소득을 올릴수 있다는 긍지를 갖게했다.

새마을기술봉사단의 기술지도로 자신감을 되찾은 金영기 씨의 造林에의 꿈은 더욱 푸르기만 했다.

아직 미조림지역으로 남아있는 金씨소유의 야산 50ha를 전부 유실수를 비롯한 경제수종으로 조림할 것을 강구중에 있다.

마을주민들과 조림주 김영기씨는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영농의 과학화가 농촌의 소득증대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실감하게되었으며 새마을기술봉사단은 마을주민들의 과학영농의 강렬한 욕구속에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약속했다.

강원도 새마을 技術奉仕團 案內

200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내

단장 최 종 열